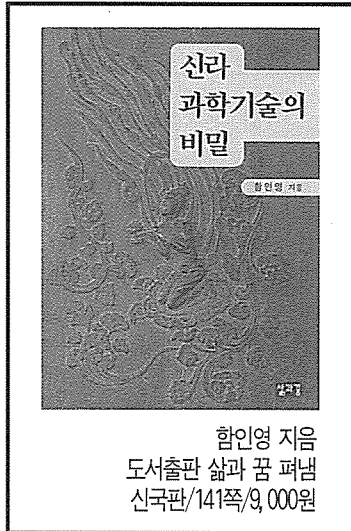


신라 과학기술의 비밀

우리는 과학기술이라 하면 흔히 서양의 과학기술을 생각하게 되고 과학기술의 원류를 그 곳에서 찾으려 한다. 어쨌든 근대의 과학기술이 서양에서 주도적으로 발전되었고 서양 과학자들에 의해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우리 민족에게도 과학과 기술은 엄연히 존재하였고 우리의 전통 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 최초의 측우기,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고려청자, 에밀레종, 첨성대, 거북선 등 우리 민족은

세계에 자랑할만한 수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특히 신라·백제 및 고구려시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문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당시의 우리 조상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고대문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과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고대문화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 역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우리의 자랑스럽고 훌륭한 과학기술문화사를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주어 그들이 우리 조상의 훌륭한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긍지를 갖게하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21세기, 세계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에게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과학기술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깨달음으로써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는 저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책은 문화유산의 과학기술사적 이



함인영 지음
도서출판 삶과 꿈 펴냄
신국판/141쪽/9,000원

해를 비롯하여 곡선미와 안정적 구조의 첨성대, 유체역학적 와류현상의 포석정, 음향효과와 주조기법이 탁월한 성덕대왕 신종, 종교예술과 과학기술의 이상적 만남인 석굴암 그리고 신라탑의 아름다움과 수학적 비례, 일본 고대문화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또한 저자는 우리에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의 역사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신라, 백제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과학을 발달시켰고, 종교와 미술 그리고 과학이

조화롭게 복합된 문화적 산물을 만들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신라 과학기술의 비밀」은 신라시대 문화유산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연구·분석한 책으로 천 백년전에 만들어진 문화유산들이 오늘날까지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문화유산들을 만들 때 매우 치밀하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문화대국을 꽃피웠던 신라인들의 예술과 기술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덕수궁예술관 및 경주박물관에 있는 약 60여점의 국보급 불상들을 최초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선 투과법에 의해 촬영하는 등 전통 과학문화재 연구에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던 저자의 끈질긴 집념의 결과로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명예 석좌교수인 저자의 과학문화재에 대한 애착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과학사학도는 물론 일반인과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읽혀지기를 바란다. ⑤7

朴澤奎(건국대 이과대 화학과 교수)